

-2학기 학사일정-

7월

16-20 일 인텐시브 (학부, 대학원)  
 20-21일 개강수련회, 오리엔테이션  
 23-27일 대학원 인텐시브  
 30일 개강

8월 10일 Census Date

9월

14일 Term 1 종강 (8주)  
 17(월)-21(금) 컬리지 미션  
 24(월)-10 월 11 (목) 청교도영성 학술탐사

10월

15일 Term 4 개강 (12주)

11월

13일 2 학기 종강  
 19일 기말시험

<학 부 임 원>

회 장 : 류경희  
 총 무 : 이경숙

<원 우 회 임 원>

회 장 : 최기동  
 총 무 : 임민철



이 시대 하나님의  
 쓰실만한 연장을 만  
 들어 내는 대장간이  
 되어야...

발행인 : 김호남학장  
 편집인 : 천용석분교장



## Jesus Lord Of the Harvest

John 4:35-38

2018년 졸업예정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 학부 졸업예정자

고명숙, 고철원, 김태호, 류은주,  
 양민종, 유상태, 이래경, 이령아,  
 이순동, 이영상, 이형원, 조성희,

☞ 대학원 졸업예정자

M.Th 김 혁, 정원일  
 M.Div 김은석, 이 수  
 M.A 광석근



졸업사은회 !!!!

그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  
 시고 주의 말씀과 신학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감사의 뜻으로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 이 래경 전도사 0451 384 258

2019년 1학기 개설 과목

<학부>

인텐시브: 세계종교와 이단 (한규희교수)  
 중세교회사 (김 혁교수)  
 세미인텐시브: 기독교론 (이상진교수)  
 설교학개론(서상기교수) 신약개론 (천용석교수)  
 기독교 교의 개론(김선규교수)  
 시편 (윤명훈교수)

<대학원>

설교와 상황 (정인교 교수)  
 연구방법론 (김진흥교수)  
 요한복음 (김세현교수)  
 실천신학과 미래교회(인용태교수)  
 \*\*\* Field Work \*\*\*  
 신약: 그리스 & 터키

# 〈비전트립/청교도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서〉 2018 캐나다&미동부 Field Study 를 다녀와서 .....



## 청교도 영성 학술탐사를 다녀와서

이 애자 학우 M.Div

청교도들은 영국 종교개혁의 완성의 주역들로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청교도의 삶의 의무를 실제적으로 강조하였다.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강조했으며, 성도들에게 신앙과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에서 그들을 반대하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미국교회와 미국의 정치, 교육,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청교도 영성의 숨결을 직접 느껴 보기 위하여 학술 탐사를 출발했다.

이 번 학술탐사 "미국의 청교도 영성"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던 유익한 시간들이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한다. 첫째는 노스필드에 있는 D. L. 무디의 생가와 그가 설립한 학교에서 미션팀으로 섬기는 줄리로부터 무디의 사역 설명을 듣고, 우리 학술탐사팀은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통성으로 아주 뜨겁게 기도했다.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청교도 영성이 다시금 불 같이 일어나길 기도했다. 19세기 세계 복음 전도자인 무디가 설립하고 설교하던 그 곳에서 세계를 품고 뜨겁게 기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무디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임하길 바란다. 둘째는 랭카스터의 아미쉬 마을에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밀레니움 극장에서 성극 'Jesus'의 관람이다. 이 성극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웅장한 3개의 무대 장치와 조명, 음향 효과 그리고 뛰어난 뮤지컬 배우들, 잘 훈련된 동물들의 등장, 등으로 하나가 되어 관객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한다. 성극 자체가 최첨단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이용한 복음전도이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시대는 초기 청교도시대 보다 훨씬 많은 물질문명이 발전되어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다 쇠퇴하고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전수'가 필요하다, 뉴 잉글랜드 '청교도 영성'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염려하는 시기에 그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올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 그리고 호주에서도 "청교도 영성"이 새롭게 불 같이 일어나길 기도한다.